



관촌면,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업 돕기

일실군 관촌면사무소, 행정지원과 직원 15명은 지난달 29일 영농철을 맞아 관촌면 관촌마을 일원에서 영농작업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공직자들이 영농현장을 찾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부직포 작업을 같이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배경한 관촌면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후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여성안심 귀갓길 현장점검 진행

남원경찰서 범죄예방단인팀 CFO는 최근 여성들의 불안한 경 개선 위해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6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원룸 밀집지역 등 여성들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CCTV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를 중점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오는 3일부터 허가 및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의 업무로,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민원후견인이 지정된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은 후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음

▲유동성(전라일보 사장)씨 모친상 = 별세일: 1일 오전 9시 35분, 빈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3일 오전 8시, 연락처: 063-221-4044.

직장내 임신부 위한 '더 캠페인'

원광대학교병원, 감정 노동자 배려와 보호 차원의 임신부 여직원 배지 착용 및 캠페인 전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직장내 임신부 배려와 보호 차원의 "더 캠페인"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광대병원의 근무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노무팀에서는 임신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 새겨진 배지를 제작해 지난 27일 임신 여직원들에게 배포했을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임신 초기의 임신부들이 우선적인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원내에 수유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내원객들도 이용하도록 개방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환자 및 내원객들로부터 심리적 공감과 상호 존중 및 자발적인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에는 약 2,000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중 약69% 가량인 1,321명의 여직원이 근무중이어서 지역 사회 내에 캠페인 과급 효과가 클 것 같다. 또한 원광대병원 교직원 중에는 임신 중인 여직원이 57명, 출산 육아 휴가중인 여직원 63명 등 임신과 출산 관련 교직원 120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김중운 행정처장은 "임신 여직원들의 착용 배지 하나에도 서로 도와 주고 보호해 주려는 의식과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가치가 공유되고 있음을 느낀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이 화두인만큼 본원은 임신 여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 안국사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컨설팅 방문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안국사를 방문해 사찰 안전관리 사항 및 화재예방 지도 점검하면서, '천불전'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

무주 안국사에 위치한 '천불전' 건물은 전국에 있는 사고(火難)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원각 건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국보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는 중요건물이다.

따라서,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 무진장소방서장, 안국사 사무국장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및 초기소화를 위한 화재안전 대책과 긴급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화기사용 주의 당부, 코로나19생활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당부하였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보존할 가치가 매우 큰 '천불전' 건물이 하루 속히 국보로 지정되길 바란다"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재를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소방력 준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안전관리 지도,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더 힘을 것이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복한 성덕면의 일손 나누기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 직원 10명은 본격 영농철을 맞이하여 최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덕면 석동리 신흥마을 최성수 농가의 과수농원을 찾아 농가의 지도하에 과수 솎기 및 봉지 씌우기 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공급 부족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단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실정에, 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농가주 최성수는 과수 농가 특성 상 수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애를 끊는 중에 일손 돕기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강기수 성덕면장은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



고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고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지구대, 의무위반행위 근절 간담회

남원서(서장 강태호)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 비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시간을 이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의무위반근절 분위가 조성 필요해짐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장 및 팀장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성 비위 및 갑질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동권 대장은 "음주운전 등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속에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폭염구급대' 응급처치 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9월말까지 운영할 '119폭염구급대'를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실습용매니큐어를 통한 정맥 확보훈련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방법숙지 ▲어름칠 물놀이사고 익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폭염구급대는 119구급차 8대와 예비 출동대(펌프런스) 8대로 구성되었으며, 구급차에는 얼음팩, 얼음조끼, 구강용 전해질액 등 응급처치물품이 비치돼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교육지원청에 마스크 지원

순창군이 지난 1일 순창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마스크 1만매(6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군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가 개시되면서, 학생들을 위해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군이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전달한 것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알림

▲고령적 스피치 기법·스피치 최고기토사·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 장소: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대상: 대학생·일반성인 남녀, 모집방문: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 (<http://le.jeju.kr>), 문의: 063-285-6676·281-7246·010-07304-5665.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